

교회 소식

-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요 1:14) 주님이 거하실 만한 심령과 가정,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당에서,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린 성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 예배 후 건축관련 Task Force 멤버들은 3:30까지 다락방에 모여주십시오.
- 다음 주일부터(3월 12일) 일광절약제(DTS “섬머타임”)이 시작됩니다. 한 시간 빨라집니다.
- 오늘 간식을 섬겨 주시는 변명균/변숙영 집사님 가정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 안내

- 대표기도: 임미숙 집사 (시 95)
- 3월 안내: 최은정 집사

예배 안내

- 주일예배: 2:00pm, YouTube
- English Service: 2:00pm, Zoom
- 새벽기도 (월-토): 6am, YouTube
- 토요새벽기도: 6am, 아몽크 본당
- 유치부 · 유년부 주일학교: 2:00pm
- 중 · 고등부 (Youth Group) 예배: 2:00pm, Zoom
- 예배처소: 448 Bedford Rd, Armonk, NY 10504
- YouTube: www.youtube.com/user/Sekwangchurch
- Zoom ID: 939 020 5125/Passcode: Sk (EM/Youth)

성경 공부 및 모임

- 풍요로운 삶: 수요일 9 am 아몽크 다락방
- 풍요로운 빛: 주일 오후 3:30 pm 아몽크 다락방
- EM 잠언 묵상: TBA
- EM Bible Study: TBA

섬기는 분들

- 담임목사: 이민영
- 시무장로: 김동수, 서영수
- 교육부 전도사: Edwin Kim
- 지휘자: 임대영 / 반주자: 이현주

기도

예배와 교제의 소중함을 새롭게 깨닫고, 결코 당연하지 않은 은혜와 새로운 회복을 간구합니다.

-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자,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교회
- 하나님 은총의 징표가 우리에게,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 전쟁과 팬데믹 가운데 공포와 혐오, 이기심과 차별의 바이러스를 이기는 의와 화평이 다스리시도록
- 캄보디아 Paul Lee, 터키 Joshua Kavak, I 국 장영호, 혼두라스 최문재, 베트남 김승훈, 크로아티아 순돈호, 모잠비크 정명섭 선교사. WEC 코리아 이정석, 우크라이나 권영봉 선교사

제23권 10호

2023년 3월 5일

<2023년 문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요한복음 1:14)

주소: 70 Bedford Road, Pleasantville, NY 10570
전화번호: (914) 874-3606
Email: nyskch@gmail.com
Homepage: www.nysekwang.org
YouTube: www.youtube.com/user/Sekwangchur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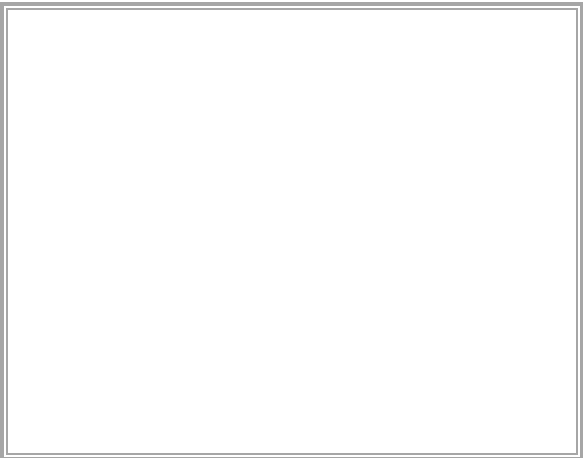


뉴욕세광교회
Sekwang Korean Presbyterian Church



Order of English Service

- <2:00pm> Presider: Pastor Edwin Kim
- Opening Praise----- Together
- Call to Worship ----- Together
- Worship & Praise ----- Together
- Confessional Prayer----- Together
- Apostle's Creed ----- Together
- Offering Prayer-----Presider
- Word of God----- **Luke 9:59-62** ----- Presider
- Sermon ----- **“Even “Good” Things Keep Us -- Pastor Kim
From Following Christ”**
- Reflection Prayer----- Together
- Lord's Prayer ----- Together



주일 예배 순서

- <오후 2시> 인도자: 이민영 목사
- 예배를 위한 기도 ----- 인도자
Worship Meditation
- *예배로의 초대 ----- “하늘에 가득 찬” -----다함께
Call to Worship
- *신앙고백 -----다함께
Apostle's Creed
- *찬송 -----20(41)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다함께
Hymn
- 대표기도 ----- 시편 121 ----- 임대영 집사
Prayer
- 찬양 ----- “주님 품에” ----- 세광찬양대
Choir Praise
- 봉헌기도 ----- 인도자
Offering Prayer
- 성경봉독 ----- 요 3:16-21 ----- 인도자
Word of God
- 설교 -----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 이민영 목사
Sermon
- 인사 및 광고 ----- 인도자
Greetings & Announcement
- *찬송 -----539(483)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다함께
Hymn
- *축도 ----- 이민영 목사
Benediction
- *일어나 주십시오 (Congregation Standing)

지난 주 설교 말씀

성전 안에서 (요 2:13-25)

“사랑”이란 단어가 처음 나오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첫째 먼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태초에.” 그런데 사랑이십니다. 니고데모가 기대한 것은 신학적 토론, 기적, 어쩌면 인정이었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거듭난 생명, 하나님의 자녀됨이었습니다. 탄생은 부모가 주는 것이지 자기가 얻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나지 않고는” 절망이면서 소망입니다. 니고데모 같은 모범적인 사람도 스스로 천국을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절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위로부터”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게 하신다는 점에서 누구에게나 소망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이들을, 아무도 모를 때에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를 전부 주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허물을 덮습니다. 예수께선 우리 허물에 찔리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대신 죽도록 대속의 희생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희생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나누는 화목제물입니다. “위로부터 온 이가 들려야.” 십자가입니다. 우리 최악의 결과요 표징이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나타난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능력입니다. “구원하려 하심이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그 사랑이 모든 허물을 덮고, 그 보혈이 모든 죄악을 씻습니다. 그 사랑을 입고 덮혔는데 옛날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믿는 자를 구원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자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을 믿으십시오. 구주로 모시십시오. 그 은혜를 날마다 새로 보고 감사하고 경배하십시오.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십시오. 우리의 죄악은 씻기고, 유혹과 정죄는 잠잠해지고, 세상의 파도를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